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7월 16일(통권66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청년세대가 본 보수정당의 재건: 과제와 대안

정 원 석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대학원생
한반도선진화재단 내오 운영위원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본 기고문은 7월 11일 정우택 국회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보수정당,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1. 서론

2018년 현재, 보수이념을 내세운 야당들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빌미로 기울어진 정치지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간헐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은 좀처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록적인 패배를 경험하였다. 좀처럼 반동의 기미를 받지 못하는 현상 이면에는 지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란 표면적인 대 사건 외에도 근본적으로 누적된 하자로 인한 만성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보수정치세력이 간과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복구플랜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2. 핵심의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온전한 정치이념을 토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전히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정당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 아닌 親朴과 非朴간 주도권 진흙탕에 빠진 '보신'정당이다 (다른 말로는 웰빙 정당으로도 표현된다). 자유한국당의 핵심의제는 보수이념에 근거한 문재인 정부 견제와 정권교체를 위한 뼈를 깎는 쇄신이 아닐뿐더러, 정당 경쟁력 차원에서도 5대 부재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대안으로도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5대 부재현상이라 함은 헌신(Devotion), 경쟁(Competition), 발전(Development), 공감(Empathy), 그리고 매력(Attractiveness)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헌신(Devotion)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현재 보수 야당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희생할 생각도, 누구도 앞장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수가 집권하던 시절 계파간 다툼과 이견투구 양상을 놓고 민생을 외면했던 과거에 대해 親朴과 非朴 모두 면책될 수 없다. 안보를 외치는 보수정권의 핵심 인력의 상당수가 군 면제자인 것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뿐더러 청년취업난을 주제로 현 정권을 비난하는 상당수의 보수 정치인들은 일자리 청탁과 낙하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민을 우선시하겠다는 한 중진의원은 수십 대 카메라 앞에서 노룩패스를 기가 막히게 선보여 가히 갑질 본능을 스스로 증명해내는데 성공했다. 지난 선거기간에는 대표라는 인물이 국가발전을 위한 건설적 비판은 보이지 않고 보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천박한 발언만 이어나갔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진짜 박근혜 사람이라며 지역구에서 어필한 한 초선의원은 본분을 망각한 채 본인이 자유한국당 쇄신의 섯별이라 자평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착각을 넘어 망각이라 볼 만하다. 더 이상의 사례를 논할 필요도 없이 전술한 사건사례들만 보더라도 진정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보

수이념의 실현을 위해 희생할 정치인의 품격과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헌신이 부재한 정당이 정작 현 정권은 쇼에 특화된 것이라 비아냥거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런 쇼조차 하지 않은 채 대놓고 탐욕만을 뽐내며 드러내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이 선택할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보수진영의 대표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無헌신의 표본이며 이러한 조직적 관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 차라리 해산하는게 국민에 대한 올바른 도리이자 진정한 쇄신의 첫 단계라고 본다.

2) 경쟁(Competition)과 발전(Development)

자유한국당은 경쟁이 없다. 계파에 기초한 하향식 인재개발에 특화된 보신(保身)정당 답게 오직 주군의, 주군에 의한, 그리고 주군을 위한 정당일 뿐이다. 정작 자유경제질서를 이념적 뿌리로 여기면서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공정한 경쟁'은 당내에 존재하지 않으니 말 그대로 사이비 정당이다. 정작 여당의 경우 그토록 '빨갱이 공산주의'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과 쇄신 측면에서 볼 때에는 김종인을 필두로 대대적 필터링을 감행하는데 성공한다. 이 정도면 정작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모습을 보인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진박, 친박, 비박이라는 3개의 등급표에 따라 공천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저항도 비판도 없이 덩치 값 못하는 당시 대표는 '옥새 나르샤'를 연출해 코미디의 절정을 이루었다. 결국 능력에 근거한 인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지금에 와서도 대안으로 내세울 옵션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능력보다는 충성을, 국민보다는 각하를 숭배한 인적자원이 연예인 서바이벌 대회보다 더욱 준엄한 국민들의 기준에 충족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문제는 현재의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적어도 다음 총선 때 민심에 따른 완력으로 정리될 때까지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보수이념의 총체적 발전과 정권교체를

위한 절치부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무능력한 잣대로 인재를 양육하고 선발했으니 발전도 그만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주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공감(Sympathy)과 매력(Attractiveness)

개인적으로 보수정권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반국민정서에 공감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된 하향식 인재개발 시스템 속에서 보수정당 내 대부분의 인적 자원들의 관심은 더 이상 국민과 공감하지 않는다. 각하와의 호흡과 공감만이 자리를 보전하고 정치적 이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보수 정당은 국민정서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를 평가 절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사건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실하게 운영된 선박에 탑승한 수 백 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고, 국가에 의한 잘못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국가의 책임귀속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딸들을 잃어버린 수 백 명의 유족들과 국민정서에 제대로 공감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직무상 소홀했다는 점과 위급한 시기에 공적구조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번이라도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처음부터라도 국민 재난 대응에 대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 했더라면 세월호 이슈는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일명 '꼰대'라 불리는 고압적이며 권위적인 태도는 과거 성장주의 시절에 도취되어 정작 지금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간과하였다. 일상에서의 공감도 위로도 없는 상황 속에서 케케묵은 반공주의적 정치공학에 기초한 反복 색깔론과 수십 년 이전의 한강의 기적에 근거한 경제발전론만을 전면에 내세워 21세기 혁신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대안이라 내세우고 있으니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보수에 희망을 걸지 않은 것이다. 공감이 없으니 더 이상 매력도, 설득도 없는 것이다. 그 와중에 누적된 무능력과 밥그릇 싸

움에 기가 찰대로 찬 상황 속에서 정작 대통령은 근본도 알 수 없는 아줌마와 함께 국정운영을 했으니 국민들이 더 이상 보수진영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시급히 공감에 근거한 보수정치만의 매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보수 세력을 위한 기회는 결단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잃은 신망은 그만큼 회복하기 어렵다.

3. 대안

현 보수정당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다.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쇠고기 파동 등으로 촉발된 위기 등과 달리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다. 현재 보수조차 보수정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 대부분과 부산, 울산, 경남 등이 여당 더불어 민주당에게 넘어갔으며, 60대 이상의 노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무능과 부패, 그리고 수구 등의 부정적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 매김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환기(Refreshing)시킬만한 인재나 컨셉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런 부정기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본다. 지난 지방선거를 망친 장본인이 정계은퇴가 아닌 "I will be back"을 읊조리며 미국으로 출국한 사례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본질적 無 매력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대안은 '해산'이다. 해산 컨셉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자신들의 지난 과오들을 하나하나씩 참회하는 방식으로 당의 문을 스스로 닫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국민 시선을 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80% 이상은 현직에서 물갈이 되어야 한다. 물갈이 대상은 親朴과 非朴 구분 없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고 보수 정치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가지지 못한 의원은 철저히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시대정신과 융합능력을 꼭 갖춘 정치인들이 남아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을 근거로 교육감을 사퇴하라는 할머니 국회의원은 이

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과 열강들의 개입이 날로 심해지는 격변기 속에서 새로운 역동력으로 보수정당을 기치로 내걸 수 있는 새로운 피의 수혈과 육성을 앞으로 해산과정과 더불어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

그 이후 2020년 총선에 보수정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컨셉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원로들은 원로대로 자문단을 꾸려 새로운 인적자원들이 혈기에 못 이겨 실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새롭게 영입된 인재들은 원로 자문단의 조언에 힘입어 자신들의 경험부족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며 대국민 소통과 보수 철학에 알맞은 정책과 설득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연예인과 비슷한 존재라고 본다. 시대가 바뀐 정치 무대 위에서는 이제 설운도가 아닌 방탄소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전히 트로트를 내세워 새로운 무대 위에서 자신이 어필 가능하다는 생각에 빠진 의원들은 이제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아름다운 퇴장을 진행할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퇴장은 전진을 위한 후퇴 컨셉이 아닌, 말그대로 진정성 있는 아름다운 퇴장이어야 한다. 이런 진정성 위에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다면, 기적적으로나마 보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자유한국당 구성원이 그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관망하며 새로운 세력이 때에 힘입어 등장할 때 새로운 대의명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끝났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